

북한의 IT인프라 현황과 남북한 전자무역의 도입을 위한 협력방안*

IT Infrastructure of North Korea and Cooperation to Introduce
e-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최석범(Seok-Beom Choi)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북한 IT인프라 현황 | 참고문헌 |
| III. 북한의 전자상거래 현황 및 남북한 IT협력의 현황 | Abstract |
| IV. 남북한 전자무역의 도입을 위한 협력방안 | |

Abstract

North Korea has stressed Information Technology in policy fostering science as Kim Jong-il has been interested in IT industry. In view of development of e-business in Northeast Asia, South Korea is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It is the time to look into the current situation, strategy and issues of IT in North Korea. Although North Korea is forced to select the development of IT Industry as growth engine, the problems in the IT Infrastructure are as follows : lack i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lack in diversity of software, low level of hardware, limited use of internet.

This paper deals with the IT Infrastructure of North Korea and IT and e-Commerce Cooperation, introduction of e-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ey Words : North Korea, IT, Information Technology, e-Trade, e-Commerce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4-072-BS3035)

I. 서론

남북한협력관계는 경제협력의 단계를 벗어나 IT협력의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남북협력은 우여곡절도 많은 남북관계를 지속하게 한 견인차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 동안의 협력도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향후의 협력은 양과 질의 차원에서 증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한경제협력사업은 정치적 이슈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 왔다는 점에서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속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그동안의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에서 큰 걸림돌이었던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한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의 핵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된다면 남북한협력사업도 양과 질적 차원에서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협력에서 질적인 증가는 남북한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할 수 있기 때문에 질적인 증가를 어떤 식으로 도모하는가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 해결책의 하나가 바로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 또는 전자무역협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북한 IT협력사업도 다각화함으로써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증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IT수준을 평가할 때 IT협력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부분이 바로 IT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고 IT인력의 우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한의 우수한 IT기술을 이전시키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전세계적으로 과급되고 있고 북한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와 전자무역에서의 남북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win-win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IT인프라 현황과 전자상거래현황을 살펴보고 남북한 전자상거래 협력을 포함하여 남북한 전자무역의 도입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남북한 전자무역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북한 IT인프라 현황

1. 개요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에서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¹⁾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율을 세우고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²⁾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기조는 ①기술혁명의 계속적인 추진, ②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강화, ③과학연구사업에서의 주체를 철저히 세운다는 것이다.³⁾

북한은 김정일위원장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과학기술을 핵심과제로 채택하고 그중 전자소재산업, 컴퓨터산업, 에너지 분야의 개발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컴퓨터관련분야에서는 하드웨어부분의 개발실적은 거의 없으나 소프트웨어분야에서의 우수한 제품이 개발되어 있고 개발분야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바둑게임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IT인력도 상당히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IT인프라 수준은 관련전문가들에 따르면 남한의 70년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⁴⁾

2. 컴퓨터의 보급현황 및 제조

북한의 PC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펜티엄급으로 보급되어 있고 조선 컴퓨터센터에는 최고급펜티엄이 보급되어 있으며 초창기모델들은 아직 폐기되지 않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교육 등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아 그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의 컴퓨터수급현황을 살펴보면 반도체나 HDD 등이 자체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으므로 중국과 일본(조총련)을 통하여 컴퓨터의 핵심부품을 수입, 조립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경을 통하여 수입되고 있는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중국에서 사용된 사양모델의 컴퓨터가 대량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 컴퓨터는 기관, 연구소, 대학 등에 집중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김책 공업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컴퓨터 개발연구를 시작하여 1993년에 평양 대동강유역에 PC생산을 위한 평양컴퓨터 조립공장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자체개발기술 미비로 대만·홍콩·중국 등을 통해서 모든 PC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고 있는 실정이다.⁵⁾

2003년도에는 바세나르협약, 자본과 기술부족 등 여러 제약속에서 펜티엄IV급 컴퓨터를 조립생산하기 시작하였는데 바세나르 회원국이 아닌 중국과 합작으로 펜티엄급 컴퓨터를 연간 본체 13만 5천대, 모니터 10만대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⁶⁾

1) 북한사회주의헌법 제50조

2) 북한사회주의헌법 제51조

3) 통일부, 「2004북한개요」, 2004, p.303.

4) 국회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 「남북정보통신교류증진방안세미나자료집」, 2001.2.7.

5) 조현경, “북한의 IT현황과 열의”, 「월간 경영계」, 제275권, 한국경영자총협회, 2001, p.24.

6) 북한연구소 편집부, “북한자료-2003년도 IT부문 성과”, 「북한」, 제386호, 북한연구소, 2004.2, pp.100-111.

<표 1> 북한의 2003년도 H/W주요 개발실적

일 시	개 발 내 용	연 구 기 관
3.15	펜티엄IV급 ‘아침-판다PC’ 생산	아침-판다컴퓨터 합영회사
3.28	휴대용 ‘음성증폭기’	강원도 통신기계수리공장
4.5	휴대용 ‘야외전자시계’	과학원 전자공학연구소
4.7	휴대용 개인단말기 ‘하나21’	과학원.조선컴퓨터센터 공동

자료 : 북한연구소 편집부, “북한자료-2003년도 IT부문 성과”, 「북한」, 제386호, 북한연구소, 2004.2, p.111.

3. 소프트웨어 개발현황

북한의 열악한 하드웨어개발과 달리 소프트웨어기술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이것은 자본이 많이 드는 하드웨어보다는 인간의 두뇌와 창조력만 있으면 훌륭한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분야에 집중한 결과인데⁷⁾ 김정일위원장은 컴퓨터관련기관들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연구원들에게 프로그램의 개발을 독려했고 외국컴퓨터기술의 도입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외국의 전문잡지를 각 연구기관에 보급시키고 있다.

1990년대부터는 매년 전국 컴퓨터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보화와 프로그램개발을 정책적으로 기획하여 1991년에서 2000년까지 ‘과학기술의 현대화 중장기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2000년 과학기술발전전망목표를 제시하였는데 ①2000년까지 기초과학발전도대구축, ②컴퓨터.원자력 이용 등 첨단과학기술발전, ③고속전자기계공업, 농업 등 산업전부문의 과학기술발전, ④2000년까지 연간 국민소득의 5%를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박사, 준박사 등 200만명의 기술자, 전문가 양성, ⑤ UNDP 등 UN산하 과학기술기구와의 교류증대 및 지원기금 확보를 통한 선진기술도입, ⑥연구단지 조성, 공장·기업소 등 현장연구소의 현대화 및 연구환경개선 등이었다.

조선컴퓨터센터(KCC)는 최근 대외활동이 가장 활발한 북한의 SW개발회사이며 현재 800명 규모의 직원을 보유하고 평양뿐만 아니라 함흥, 원산, 신의주 등에 사무소를 두고 정책적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김정일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1990년 10월에 설립되어 북한 전역에서 다양한 방면의 재능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여 교육을 통하여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관으로 이미 S/W관련개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2003년도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실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게임·언어처리·인식분야의 S/W개발 및 수출, 생산공정의 컴퓨터화부문에서 다소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S/W산업은 창의성과 상품성이 부족하여 가치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⁸⁾

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남북 통합과정의 시나리오」, 2004.2, p.38.

8) 북한연구소 편집부, 전게서, p.100.

〈표 2〉 2003년도 S/W 주요 개발실적

일 시	개 발 내 용	연 구 기 관
1.13	생산지휘프로그램 ‘백금’	정보기술개발연구센터
5.22	음성인식 ‘체질분류방법’ 프로그램	고려의학종합병원
6.10	‘세포융합’ 프로그램	과학원 자동화연구소
8.6	과학기술대사전 ‘광명2003’	과학원 중앙과학기술 통보사
8.15	세계컴퓨터바둑대회 ‘은바둑’ 우승	조선컴퓨터센터 삼일포정보센터
8.23	지리정보체계 ‘삼천리’	김일성종합대학
8.23	문자인식 ‘용남산 6.1’	김일성종합대학
8.23	공장·기업소 관리운영프로그램	김책공대·이과대학 공동
9.15	건축지원 ‘고구려건축’ 프로그램	평양건설건축대학
10.9	컴퓨터운영체계 ‘아리랑2.0’	김책공대
10.9	화상프로그램 ‘섬광’	김책공대
11.6	생물프로그램 ‘생명의 기원’	김일성종합대학 생물정보연구실
11.6	컴퓨터 총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	중앙과학기술통보사

자료 : 전게서, p.111.

4. 인터넷

북한의 통신은 하드웨어와 같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데 북한의 통신정책은 공공행정과 군사부문의 수요충족수준에 지나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에 경제특구인 나진선봉지역과 평양과 대도시간의 연결지역을 제외하면 통신망이 제대로 구비된 지역이 거의 없다. 북한의 정보통신망은 1997년 6월에 원격검색시스템인 ‘광명’을 설치하여 평양의 LAN망과 각 기업소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북한 최초의 광역전산망(WAN)을 개통하였다.

지방과의 통신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주요도시간 광통신 케이블공사 등 인터넷망의 기본 인프라구축에 최근 열정을 쏟고 있다. 그러나 외국과의 인터넷접속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인터넷사용자는 국제전화를 사용한 모뎀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특수기관을 중심으로 국가정보망인 WAN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외국과의 인터넷 접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⁹⁾ 2003년에는 경제, 과학발전을 알리기 위해 인터넷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주민의 이용은 통제하였다. 대내적으로는 내부전산망인 INTRANET(폐쇄적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북한내 20여개의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경제부문의 인터넷사이트를 직·간접적으로 확대추진하였고 국제인터넷망과의 접속도 추진하였다.¹⁰⁾

9) 조현정, 전게서, p.25.

10) 북한연구소 편집부, 전게서, p.112.

북한은 2003년 2월 1일 조선신보(조선통신사)를 통해 전국적인 컴퓨터통신망구축을 완료하여 통신 서비스를 개시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¹¹⁾

현재 북한의 전국네트워크로는 광명망(광명통신망)으로 불리는 ‘과학기술검색체계’(또는 ‘전국컴퓨터 자료통신망’)외에 국가보위부, 인민보안성, 군대가 운영하는 독자네트워크가 있다. 광명망의 접속은 전화선모뎀을 이용하는 다이얼링 접속방식이고 전화선을 사용하지 않는 전용네트워크를 구축중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¹²⁾

북한은 어떤 다른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강력한 인터넷통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은 국내에서의 인터넷에 대한 대중적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고 일부 특수계층만이 비공식적으로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¹³⁾

〈표 3〉 북한의 컴퓨터 통신망 현황

구 분	내 용
대상지역	전지역(전화망분포와 같은 체계)
통신속도	평양시내 : 1GB, 중앙-각도 : 2.5GB
가입·이용	시내 각 전화분국서 가입(가입·이용료 무료) 가입자는 WEB(홈페이지), E-Mail 등 이용가능
인터넷	인터넷연결은 차단기술 확보다음의 과제 인터넷을 이용한 e-Mail 서비스를 준비중

특히 주목할 것은 최근 북한의 국가최상위도메인(ccLTD)인 ‘kp’를 이용한 웹사이트가 개설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과학원은 최근 평양전화국 전자우편실 컴퓨터망에 최신과학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과학기술전시관’사이트(www.stic.ac.kp)와 ‘의학과학정보센터’사이트(www.icms.he.kp)를 개설하였다. 이들 사이트들은 인트라넷에서 운영되는 사이트로, 인터넷 개방에 준비하기 위한 시험적인 사이트 개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북한의 인트라넷 연결은 매우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고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평양정보센터(PIC)의 홈페이지는 개설된지 3개월도 안되어 방문자수가 11,900명을 넘어설 정도로 이용이 활발하였다.¹⁴⁾

11) 제성호, 「KISDI이슈리포트-남북 인터넷교류와 남북한 교류협력법 개정문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7.21, p.8.
 12) 북한연구소 편집부, “북한 IT산업 및 도 공산대학 실태”, 「북한」, 통권 404호, 2005.8, pp.182-184.
 13) 고경민, “북한의 전자정부 구축방식과 전략 : 인터넷인트라넷 전자정부의 분리구축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제7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03, p.304.
 14) 박찬모, “남북 정보통신(IT)산업 협력의 현황과 과제”, 「제17회 미래전략포럼 발표문」, 2002.8.24, p.10.

〈표 4〉 북한의 인터넷 연결 기관

국가기관	국가안전보위부, 경찰국, 사회문화부,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체신성, 무역성
학술연구소	조선컴퓨터센터, 중앙위성통신국,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조선과학원, 과학기술통보사, 농업과학원, 발명국, 평양정보센터, 6.26기술봉사소, 인민대학습당
공장기업소	조선8.28무역회사,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 서경무역회사, 련봉합작회사(용훈분회사), 조선대흥연유 및 료전합영회사, 조선평원무역회사, 조선만경석암무역회사

자료 : 남성욱, 「북한의 IT산업 발전 전략과 강성대국」, 한울출판사, 2003, p.181.

5. 북한의 정보화 현황

북한이 1990년대말부터 과학기술과 정보화발전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우선, 정보화를 통한 단번의 도약, 정보화의 발전을 통해 국가 및 사회통제를 확실히 시행하려는 전략, IT산업발전이 체제의 급격한 개혁을 수반하지 않고 추진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경제전반에 정보화를 추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성을 더욱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IT산업이 북한의 에너지사정을 고려한 에너지 절약형산업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¹⁵⁾

이상에서 살펴본 북한의 정보화 현황은 1990년대 이후 어려워진 국가경제를 재건하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정보화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를 제외하고는 발전 수준이 현저히 낮은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드웨어적인 측면, 통신 인프라 측면, 인터넷 현황 측면에서 그 발전수준이 극히 낙후되고 폐쇄적인 상황임에 틀림없다.

〈표 5〉 북한의 정보화 현황

구분	인프라 현황	특징	비고
통신 분야	·매우취약 (남한의 1980년대 수준)	·사회통제의 수단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선형구조	·최근 현대화 작업 추진
하드웨어 분야	·보유대수 및 생산능력에 있어서 매우 취약 (대략 13만대, 인구 200명당 1대 수준)	·바세나르 협약 등에 의해 대외 수입이 제한적 ·선군주의에 의해 군우선 보급 ·KCC, PIC 등 연구기관의 경우 최신기종의 PC 다량 보유	·전자공업성 산하 전자제품개발회사에서 조립생산 추진 등을 자체 개발 노력 병행

15) 박문우, 「월간 정보격차-북한의 정보화교육을 중심으로 본 남북간 정보격차 현황과 대책」, Vol.1, No.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7, p.10.

구분	인프라 현황	특징	비고
소프트웨어 분야	·다양한 개발기관 보유 ·상당한 기술인력 보유	·북한 당국의 대대적인 지원 ·단위기관별로 자체개발능력 보유	·조선과학원, PIC, KCC 등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수출까지 추진
인터넷 분야	·북한 내부와 외부 인터넷 연결은 제한 ·다양한 웹페이지 운영 ·내부 네트워크인 인트라넷 운영(1,300여개 기관 상호연결)	·체제유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보급 ·주요 인터넷서버가 제3국에 위치 ·인터넷보다는 내부 네트워크인 인트라넷에 치중	·최근 들어 인터넷에 대한 관심과 북한 내부에서 외부 인터넷에 접속 가능 ·상업적 웹페이지 운영 ·인터넷 부분에서의 남북경협 추진

자료 : 박문우, 「월간 정보격차-북한의 정보화교육을 중심으로 본 남북간 정보격차 현황과 대책」, Vol.1, No.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7, p.24.

III. 북한의 전자상거래 현황 및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의 현황

1. 북한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평가

1) 현황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 개설 연혁을 살펴보면, 북한은 1995년 북한 정보를 제공하는 최초의 사이트인 김소프트(www.kimsoft.com)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1996년에는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 개설에 나서 1997년 1월에 세계통신기구에 처음 공식적으로 가입하였다. 1997년 들어 북한체제를 지지하고 찬양하는 북한 체제와 북한인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친북한(親北韓) 인터넷 사이트(Pro-North Korean Internet Site)가 처음 나타났다.¹⁶⁾ 즉, 조선중앙통신의 동경지사인 조선뉴스서비스(Korean News Services)에 의해 친북한 인터넷 사이트 조선중앙통신(www.kcna.co.jp)이 일본 동경 서버로 개설하였고, 1997년 일본에서 개설한 ‘조선신보’(www.korea-np.jp/korea)사이트는 조총련이 발행하는 일간지 「조선신보」 사의 공식 사이트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1997년 8월 23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측 서버를 이용해 북한 주체사상 연구소 ‘호주협의회’(The Australian for the Study of the Juche Idea)명의로 ‘Chajusung’(www.geocities.com/CapitolHill/Lobby/1461/index.html)이라는 사이트가 개설되었다.

이후에도 북한은 1999년 10월 10일에 북조선 노동당 창건일에 조선중앙 TV의 위성중계방송 개시와 더불어 공식인터넷 사이트인 ‘조선인포뱅크’(www.dprkorea.com)를 개설하였다. 조선인포뱅크는 운영주체

16) 남성욱, 「북한의 IT산업 발전 전략과 강성대국」, 한울출판사, 2003, p.76.

가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범태)’로 북한의 아시아태평양위원회(아태)나 민족경제연합회(민경련) 등 외화벌이 관련 대외기관의 하부조직이며 범태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이후 다수 발견되었다.¹⁷⁾

<그림 1> ‘dprkorea-trade.com



한편 남북(해외)경협 및 투자유치용으로 2001년 9월 중국 심양 서버로 ‘실리은행’(www.silibank.com)이 개설되어 심양과 평양사이의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¹⁸⁾ 또한 2002년 4월부터는 인터넷 상에서 접속이 가능한 남북한 합작 인터넷 사이트들이 평양의 문수동에 있는 서버를 통해 개설되어 운영되었다. 이 사이트의 운영 주체는 남한 벤처기업인 ‘훈넷’과 북한의 ‘장생무역총회사’ 및 ‘범태’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조선복권합영회사’이다. 조선복권합영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는 복권(www.dplotto.com), 카지노(www.jupae.com), 바둑(www.mybaduk.com)사이트가 있다.

북한은 2002년과 2003년 사이 순수 상업용 웹사이트 개설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대표적인 예로 2003년 3월 25일에 개설된 북한의 영문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천리마그룹’사이트와 오스트리아

17) 제성호, 전계서, p.9.

18) 한국개발연구원북한경제팀, ‘최근 북한의 인터넷 서비스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2002.3, p.57; 남성욱, 전계서, pp.175~180.

주재 북한대사관이 2002년 말부터 전자상거래를 통한 북한 상품판매를 위해 개설한 ‘dprkorea-trade.com’ 사이트가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오피를 등록하여 놓고 있고 신제품과 신기술을 소개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 화면구성이나 그 내용에서 국내사이트와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이 외에도 2003년 4월 1일 개설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는 북한의 공식 포털사이트로 체제선전용 사이트의 전형으로 ‘남녘의 초·중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 코너 등 대남 선전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표 6>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사이트명	인터넷주소	서버국	개 설	주요내용	비 고
조선통신	www.kcna.co.jp	일본	97.1	정보제공/체제선전	-
조선신보	www.korea-np.co.jp	일본	97.2	정보제공/체제선전	조총련
조선인포뱅크	www.dprkorea.com	중국	99.10	상업용	범태
평양 Times	www.time.dprkorea.com	중국	00.7	정보제공/체제선전	범태
실리은행	www.silibank.com	중국	01.9	상업용(mail서비스)	-
조선관광	www.dprknta.com	일본	02.1	상업용	-
인터넷 복권	www.dklotto.com	평양	02.4	상업용	남북합작
인터넷 카지노	www.jupae.com	평양	02.4	상업용	남북합작
인터넷 바둑	www.mybaduk.com	평양	02.4	상업용	남북합작
조선무역	www.dprkorea-trade.com	호주	02.12	상업용	-
천리마그룹	www.chollima-group.com	스위스	03.2	상업용	현재폐쇄
우리민족끼리	www.uriminxokkiri.com	일본	03.4	체제선전	-
조선우호협회	www.korea-dpr.com	중국	03.7	상업용	-
평양국제정보센터	www.pic-international.com	싱가포르	03.11	상업용	-

2003년 11월 22일에는 평양정보센터 싱가포르에서 S/W판매사이트인 www.pic-international.com을 개설 하였는데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업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평양정보센터를 소개하고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림 2> pic-international.com사이트



한편 북한은 국제사회와 연결되는 인터넷 이외에도 내부기관끼리 온라인 연결망(인트라넷)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¹⁹⁾ 북한은 인트라넷을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정보체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브라우저와 www를 활용한 체계이다.²⁰⁾

북한은 1990년대 초에 과학원, 김일성 종합대학 등 주요 기관에 LAN을 설치한 바 있으며, 1997년 6월에는 인트라넷 개념의 초보적인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 10월 노동당 창건 55주년을 계기로 전국을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하는 인트라넷 구축을 완료하여 2001년 말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2년 11월부터는 그동안 지역별로 운영해오던 컴퓨터 네트워크를

19) 고경민, 전거서, pp.311-312.

20) 고수석·박경은, 「김정일과 IT혁명」, 베스트북, 2002, pp.124-125.

전국적인 연결망으로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컴퓨터 네트워크는 평양시내에 1GB급, 평양과 지방간에는 2.5GB의 통신속도를 갖춘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로, 이용자는 전국 어디서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 통신망 보급을 위해 가입비 및 이용료를 무료화하고 시내 전화분국에서 컴퓨터망에 가입하면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국 컴퓨터 네트워크인 인트라넷은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 호스트서버(host server)를 둔 '광명'이다. 광명은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개발한 과학기술자료 검색시스템으로 내각의 각 위원회와 성, 중앙기관, 김일성 종합 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 평양정보센터 등 연구기관, 과학원 발명국, 인민대학습당, 주요 공장, 기업소 등 1,300여 기관 및 기업소 등이 연결되어 있다.

광명 웹사이트는 www기술과 자체의 자료기저엔진기술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완전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광명'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OS환경은 Window2000이고 20여대의 전용 서버와 망통신 설비들을 갖추고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광명'이 제공하는 주요 정보서비스들은 자료기저(데이터베이스) 검색, 전자우편, 전자소식, 웹사이트 검색, 전자도서관, 실시간 대화, 전자시장(전자상거래), 오락센터 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광명' 이외에도 북한은 2002년 초 기업과 연구소 등에 각종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분야 정보제공 웹사이트인 '전자상업센터'(e-비즈니스 센터)를 개설하였으며, 평양시 서성구역에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기업 간 거래와 수출입 업무대행을 하는 '첨단기술봉사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여기서는 컴퓨터망에 홈페이지 '첨단'을 개설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각종 최첨단 전자요소와 제품들에 대한 검색 및 주문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공장기업소의 생산공정 현대화를 위한 자동화 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외국의 프로그램 주문 및 공동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비록 국제인터넷망에 직접 연결하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경제적·정치적 목적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국가 인트라넷 '광명'을 구축하여 여기에 주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언론, 공장기업소 등의 정부기관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각 지역의 주요 공공기관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인터넷 기반 기술을 활용한 인트라넷 구축을 통해 계획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기술개선이나 인민경제의 정보화 등을 추진하면서 이를 대내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2) 평가

북한은 대외적 자원으로서의 인터넷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 정부가 직영 또는 지원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외국인터넷서버를 이용한 북한의 주요연론기관과의 북한관련 정보제공 웹사이트, 인터넷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립하여 인터넷을 통한 경제협력이나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 북한의 생산품들을 사이버상에서 판매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사이트, 그리고 대남 심리전을 목적으로 하는 체체선전용 웹사이트 등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이러한 웹사이트는 초기의 단순정보제공을 통한 체제선전용에서 상업용, 체제선전 전문용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국가인터넷으로 구축한 ‘광명’의 경우도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적 서비스용(G2C)이라기보다는 공장기업소의 생산성 향상(G2B)이나 공공기관의 업무효율성 제고 및 중앙의 지방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계획 경제의 효율성(G2G)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북한에서 개설된 인터넷사이트는 상업용보다는 체제선전용으로 전자상거래수준은 아주 미흡한 상황이고 계획경제체제하에서의 개발의지도 없고 국가망도 G2G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 남북한 IT협력의 현황

1) 남북한 IT교류협력의 동향

남북한간의 IT교류를 위한 접촉은 1970년 우리정부의 광복절 26주년 경축사 ‘평화통일의 구상’발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²¹⁾ 지금까지 남북 IT 교류협력은 주로 남북대화나 경수로, 금강산 등 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통신 지원을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 6월 남북 정상 회담 이후 소프트웨어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경협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업 초기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²²⁾

남북 IT 교류협력은 2004년 6월 현재 7건이 승인되어 958만 6천 달러 규모의 대북투자가 진행중이다.

〈표 7〉 남북 정보통신분야 경협사업 현황

추진주제	사업상대자	사업내용	지역	금액 (만불)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KT	체신성	경수로 건설 통신지원 사업	신포	14	‘97.8.1(‘97.8.1→ ‘01.2.5, ’02.5.28변경)
현대시스콤, 한국통신, 온세통신	금강산 국제관광 총회사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금강산, 평양	13	‘98.11.11 (‘98.11.11→ ‘00.11.20변경 ‘01.10.4변경 ‘02.5.28변경)
삼성전자	조선 컴퓨터센터	남북 S/W 공동개발	중국 북경	72.7 →154.4 →226.7 →286.3 →311.6	‘00.3.13 (‘00.3.13→01.6.16→ ‘02.8.21변경 ‘03.10.14변경 ‘04.5.19변경)

21) 김주진, “남북한 통신교류와 북한지역 통신망 구축”, 『TTA저널』, 제78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1.12, p.23.

22) 정보통신부, 『2004년도 정보통신백서』, 2004, p.350.

추진주제	사업상대자	사업내용	지역	금액 (만불)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하나비즈닷컴 (합영)	평양 정보센터	프로그램 공동개발, 공동개발단지 조성	중국 단둥	200	'01.4.28('01.8.22)
엔트랙 (합영)	광명성 총회사	정보기술 제품 공동개 발을 위한 「고려정보 기술센터」 건립	평양	400	'01.4.30('01.8.22)
훈넷* (합영)	범태, 조선장생 무역총회사	인터넷 게임S/W 공동개 발 및 서비스	평양	20	'01.12.29 ('01.12.29)

※ 훈넷은 '04년 1월 19일자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 취소
자료 : 정보통신부, 「2004년도 정보통신백서」, 2004, p.350.

통신부분의 경우 남북간 교류는 정부간 필요에 의해 직접연결망을 구축하였으며, 민간교류에 있어서는 거의 간접연결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3년 남북 군당국간 직통전화 2회선, 금강산 관광지 원용 및 개성 현대중기관리 사무소용 간접연결회선이 각각 2회선 증설되어 12월 현재 남북대화용 30회선, 항공기 관제 3회선, 경수로건설 16회선, 금강산관광 13회선, 개성 현대중기관리사무소 2회선 등 총 64회선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경수로 건설용 회선은 2003년 12월 1년간의 사업중단 결정으로 현재 운용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남북간 통신교류는 대부분 북한사업지역내의 남한인과 남한지역간의 통신이며, 남북연락업무 및 회담지원용 통신과 군용통신을 제외한 통신은 제3국을 경유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2000년 3월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공동개발로 시작된 소프트웨어관련 교류협력사업은 주로 남북 공동개발과 북한 소프트웨어의 수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소프트웨어 수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남한 소프트웨어의 무상공급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드웨어관련 남북 IT교류협력사업은 1998년 이후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위탁가공 및 임가공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TV, 전화기, 마이크, 소형DC모터, 소형스위치, ADSL 스플리터 등 한정된 부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의 높은 불량률 및 납품지연, 물류비 및 통관비 등 높은 간접비, 낮은 임가공비 경쟁력 등으로 인해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IT부분의 표준화 관련 협력사업은 우리말 컴퓨터 처리, 컴퓨터 자판, 컴퓨터 용어 등의 기초분야와 관련하여 정보처리학회, 한국국어정보학회 등 민간 차원에서의 학술교류가 1990년대 초반부터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1994년 이후 남북 컴퓨터전문가가 참석하는 「우리말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가 총 4회 북경에서 개최되었으며, 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도 남측 정보통신용어사전, ITU-T/R 용어 정의집을 간접적으로 북측 당국에 2~3차례 전달하여 왔다.

2) 남북 IT 교류협력 활성화 기반조성

현재 남북한의 통신인프라는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1999년 ITU에서 발행된 World Telecommunication Report에 따르면 북한 시내전화 가입자 회선수는 1998년 현재 1,100,000회선으로 남한의 약 1/18수준이며, 공중전화 회선수는 2,700회선으로 남한의 1/261수준이다. 통신부문에서의 남북한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이 이뤄질 경우 통일 후의 남북한 경제통합 및 정보격차해소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기반구조와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부문의 충분한 교류협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한간의 사회적·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남북한간 교류 및 경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통신지원을 강화하여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의 지원을 위한 연결회선 증설, 중장기적 남북 통신표준화 관련 연구와 남북한 공동 IT단지 조성에 관한 타당성 연구, 남북한 통신망 통합 및 북한 통신망 현대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2004년에는 남북관계 상황 및 경제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실현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004년에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개성공업지구의 통신인프라 구축 및 남한지역과의 통신망 직접연결 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개성공업지구의 통신사업이 향후 대북통신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영향을 감안하여 대북 통신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의 통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통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2년 남북한 당국간에 체결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를 근간으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부속합의서'의 체결을 통해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인한 통신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관광통신망 확충사업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북한의 통신부문을 발전을 유도하여 남북한간의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낙후된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 사업 지원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남북한의 통신부문이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하면 통일이 지연되더라도 남북한 교류 및 경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사업초기에는 남북한 경험지역을 중심으로 통신망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정치적 환경의 안정 및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는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북한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남·북한 통신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IT부문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이 단편적이고 시혜적인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인 전략적 기반위에 남북한 IT산업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바세나르 협정(Wassenaar Arrangement), 미국 수출관리 규정(EAR :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등 관련규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법제도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 통일 이후에 대비하여 정보통신 단일표준 확보를 위한 남북 정보통신표준협의를체를 구

성·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부문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정보통신부문의 남북한 통합에 대비하여 북한 정부통신부문의 현황, 법제도 등 북한지역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북한정보통신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관련연구의 추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IV. 남북한 전자무역의 도입을 위한 종합방안

1. 남북한 정보격차해소사업의 전개

북한의 통신인프라 현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하고 있는데 북한의 정부기관, 군기관의 컴퓨터네트워크 수준 역시 ‘광명’이라는 지역적인 수준의 인트라넷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의 네트워크로 평가된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한 정보화 수준을 비교하면 그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정보격차수준을 실감할 수 있다.

<표 8> 남북한 정보화 수준비교(2000년말 기준)

구 분	남 한	북 한
전화보급대수	2,700만대(1.7명당 1대)	140만대(15.7명당 1대)
휴대전화사용인구	2,700만명	300-1,000명
무선호출기	사실상 퇴조	2000년 8월 나진·선봉 서비스 시작, 최근 금강산 지역 일부서비스
인터넷사용인수	1,904만명	불명(극소수로 추정)
PC보급대수	1,319만대	10만대
TV보급대수(96년기준)	1,487만대	270만대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북한의 IT산업현황과 남북협력활성화방안」, 2001.10, p.60.

IT산업의 경우에는 인터넷의 적극적인 이용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습득이 이루어져야 IT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정보격차문제를 해소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는 다가올 통일시대의 통일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북한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지원 그리고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심화 및 확대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강구된 다음에 남북한 전자상거래와 전자무역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남북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협력강화

1) 남북한 전자상거래의 선결조건

남북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전자상거래관련기술들이 북한으로 이전되고 북한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어야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남북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²³⁾

첫째, 남북한 IT 및 전자상거래 용어가 표준화되어야 한다. 남북한 IT와 전자상거래관련 용어에 있어 그 사용법과 용어 그 자체가 상이하어 남북한의 IT 및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까지의 IT협력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그리고 통일후의 IT산업이나 전자상거래산업의 통합을 위해서 관련 표준화를 진행시켜야 하기 때문에 IT나 전자상거래관련 서적들을 북한에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남한의 표준을 북한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이 바로 북한의 IT 및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자들이 남한에서 출판된 서적으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남한의 IT나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들이 북한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의 북한의 정황으로는 북한의 기술자들이 남한을 방문하여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지역에 진출한 경협업체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IT와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IT와 전자상거래관련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의 IT와 전자상거래 관련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즉,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에 IT와 전자상거래관련 업체를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의 우수한 인력을 경협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3) 조현정, 전계서, p.27.

2) 남북한 전자상거래 협력강화

(1) 남북한 전자상거래 포럼 개최

남북한 전자상거래 전문가와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남북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정기적인 라운드테이블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의 IT와 전자상거래관련 전문가와 학자들을 초빙하거나 우리측 관계자가 북한을 방문하여 정기적인 남북한 전자상거래 포럼을 개최하여 남북한 IT와 전자상거래 기반 인프라를 통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2) 북한에 적합한 협력사업의 모델을 개발

남북한 IT와 전자상거래 협력시에 북한에 적합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의 IT수준은 높지 않음에도 소프트웨어 등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본기술여건은 구비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기반기술개발과 인력교육사업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분야에서 남북한 전자상거래 협력사업모델을 개발한다면 북한의 IT와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3) 남북한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의 구성

정부차원에서 남북한 전자상거래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관련부처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남북한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민간차원에서 남북 전자상거래를 논의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민간부문의 활동을 지원하고 남북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여 동북아 e-Hub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남북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정책을 도모하여야 한다.

(4) 남북한전자상거래민간협의회의 구성

정부차원의 정책협의회의 정책입안에 따라 정책을 실무적으로 도입하고 정책수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건의할 수 있는 남북한전자상거래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협의회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실질적인 남북한 전자상거래상의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남북한 전자무역 활성화방안

(1) 남한의 전자무역 인프라의 북한 활용

지금까지 한국에서 구축하여 놓은 전자무역인프라를 북한지역에서도 활용가능의 여부를 타진하고 활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무역인프라를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물론 무역프로세스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적용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되지만 북한이 개방경제체제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북한의 무역프로세스도 별도로 이루어질 것이라

는 점에서 북한의 개방후 무역프로세스를 남한의 무역프로세스로 일치시키는 작업이 또한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점에서 북한에 진출한 경험업체들의 무역업무에 전자무역인프라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2) 동북아전자무역사업 등에 북한의 참가를 유도

동아시아전자무역네트워크구축사업 등에 북한의 국영기업이 참가하여 동아시아지역내에서 전자무역으로 무역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북한지역내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전자무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고 전자무역인프라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북한지역의 별도회사를 설립하여 전자무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3) 남북한 전자무역 모델의 개발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남북한간에 거래되는 무역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무역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남한과 북한의 물물교환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물물교환방식에 근거한 전자무역모델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북한의 천연자원과 남한의 공업제품을 물물교환하는 방식의 무역은 초기의 남북한 무역에서 시도될 수 있는 거래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델에 근거하여 북한의 개방체제하에서의 전자무역체제로 전환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남북한 전자무역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4) 남북한 전자무역 분쟁처리기구의 설치

남북한이나 기타국가간의 전자무역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남북한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무역분쟁처리기구로서 남북상사중재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심이 되고 북한에서 이에 상응하는 기구가 중심이 되어 남북한 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남북한경제협력은 그 동안 정치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IT협력을 비롯하여 전자상거래협력과 전자무역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실적을 평가하면 남북한 IT협력의 경우에도 양과 질적인 차원에서 매우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의 IT인프라가 극히 낙후되었다는 점과 북한의 경직적인 태도 등의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진척되어 온 남북한 IT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데 전자상거래가 글로벌경제에서 생존의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에게 생존의 길을 제공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와 전자무역에서의 상호협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이 개방경제체제로의 전환하는데 있어서 IT인프라와 전자상거래기반기술의 확보가 선행되어야만 글로벌경제체제속에서 영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우선 전자상거래와 전자무역을 남북한에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정보격차 해소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정보격차해소사업으로서 인프라구축사업, 북한주민정보화교육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한 전자상거래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남북한전자상거래포럼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즉, 남북한 전자상거래 전문가와 학자들이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하여 남북한전자상거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에 적합한 협력사업의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기반기술 개발과 인력교육사업분야에서 남북한 전자상거래협력사업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한 정부차원에서 전자상거래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남북한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차원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남북한전자상거래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 전자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선, 남한의 전자무역 인프라를 북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북한에 진출한 경험업체의 무역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동북아전자무역사업 등에 북한 참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전자무역사업에 북한이 참가함으로써 전자무역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한 실정에 적합한 전자무역모델을 개발하고 남북한 전자무역 분쟁 처리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경민, “북한의 전자정부 구축 방식과 전략: 인터넷·인트라넷 전자정부의 분리구축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 7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03.
- 고수석·박경은, 「김정일과 IT혁명」, 베스트북, 2002.
- 국회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 「남북정보통신교류증진방안세미나자료집」, 2001.2.7.

- 김주진, “남북한 통신교류와 북한지역 통신망 구축”, 「TTA저널」, 제78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1.12.
- 남성욱, 「북한의 IT산업 발전 전략과 강성대국」, 한울출판사, 2003.
- 박문우, 「월간 정보격차-북한의 정보화교육을 중심으로 본 남북간 정보격차 현황과 대책」, Vol.1, No.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7.
- 박찬모, “남북 정보통신(IT)산업 협력의 현황과 과제”, 「제17회 미래전략포럼 발표문」, 2002.8.24.
- 북한연구소 편집부, “북한 IT산업 및 도 공산대학 실태”, 「북한」, 통권 404호, 2005.8.
- 북한연구소 편집부, “북한자료-2003년도 IT부문 성과”, 「북한」, 제386호, 북한연구소, 2004.2.
- 정보통신부, 「2004년도 정보통신백서」, 2004.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남북 통합과정의 시나리오」, 2004.2.
- 제성호, 「KISDI이슈리포트-남북 인터넷교류와 남북한 교류협력법 개정문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7.21.
- 조현정, “북한의 IT현황과 열의”, 「월간 경영계」, 제275권, 한국경영자총협회, 2001.
- 통일부, 「2004북한개요」, 2004.
- 한국개발연구원북한경제팀, “최근 북한의 인터넷 서비스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2002.3.
- 한국무역협회, 「북한의 IT산업현황과 남북협력활성화방안」, 2001.10.